

최후의 보루

출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답이될 가능성이
높을 수 밖에 없는답을 도출한다

서두

최후의 보루는
도저히 선지를 판단할 수 없을때
시간이얼마남지않아 문제를 짚어야할때
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.
또한 100% 맞지도 않습니다.
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
사용하시는 것은 독이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
바랍니다.

주제0: 출제의 원리 생각하기

주제1: 선지 개수세기

주제2: 같은말 잡기

주제3: 범주의 상대적 크기 비교

주제4: 선지의 복잡성 비교

주제5: 거시적 범주판단

주제0 : 출제의 원리 생각하기

최후의 보루는 논리없이 그냥 찍는 방법이 아니다

독서는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. 한 지문에 대해서 수능 강사, 학교 선생님에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모두 똑같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.

시험은 중요한 부분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을 낼 수 밖에 없다. 논술 시험에서는 빈칸을 뚫어 물어보면 되지만 5지선다 객관식으로 구성되어있는 수능은 중요한 부분을 정답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다.

우리는 이 점을 노리는 것이다.

앞으로 5개의 유형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다.

이 5개의 유형이 그 어떤 방법보다 시간이 부족하여 선지를 논증할 수 없을 때 빠르게 판단하여 문제를 맞힐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.